

요약부터 말할게. 이 본문은 입력일 기준 확인된 숫자만 사용했다. 글로벌 데이터가 비어 있는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다.

PART 1 — 어제 낙찰/수요예측 한눈에 보기

- 낙찰 구조화 건수: 6건
- 구조화 낙찰금액 합산: 11,200억
- 최고 응찰배율: 인천국제공항공사 82D 3.35x
- 최저 응찰배율: 한전 47D 1.3x

발행사(등급)	만기	금리/스프레드	금액	응찰	구분
울산광역시도시공사(AA+)	3Y	민평+14.0bp	300억	3.33x	공사채
한국가스공사(A1)	6D	2.51%	2,100억	2.38x	CP/전단채
한국주택금융공사(A1)	7D	2.55%	1,500억	3.27x	CP/전단채
한전(A1)	46D	2.92%	2,600억	1.38x	CP/전단채
한전(A1)	47D	2.92%	2,700억	1.3x	CP/전단채
인천국제공항공사(A1)	82D	2.96%	2,000억	3.35x	CP/전단채

판단: 공사채/전단채 쪽 응찰이 통안채보다 강했다. 다만 이것만으로 금리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, 다음 발행의 언더/오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.

[수요예측 결과]

수요예측 결과 수집 안 됨.

PART 2 — 발행/공급 캘린더

- 발행 물량 합산: 70,700억
- 여전채: 36,300억
- 회사채: 19,100억
- 공사채: 15,300억

판단: 공급 부담은 섹터별로 봐야 한다. 여전채·회사채 물량이 동시에 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쉽게 좁아지기 어렵다.

익일/다음 입찰:

- 한국가스공사(A1): 4 일물 / 5 일물 / 총 4,900 억 내외 (4 일물 2,400 억 / 5 일물 2,500 억)
- 한전(A1): 46 일물 / 47 일물 / 총 6,000 억 내외 (46 일물 3,000 억 / 47 일물 3,000 억)

익일/향후 수요예측:

- 7/13 월 키움증권(AA0) 2,000억 / Max 4,000억
- 7/14 화 한진(BBB+/P) 400억 / Max 800억

PART 3 — 금리와 커브

글로벌 데이터: 해당 메일에서 수집 안 됨. 글로벌 원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.

국고 2Y: 3.655% (+1.0bp)
 국고 3Y: 3.850% (+1.0bp)
 국고 5Y: 4.070% (+2.3bp)
 국고 10Y: 4.290% (+0.8bp)
 3-10 스프레드: 44.0bp

RP 시작금리: 2.49% (+4.0bp)

판단: 3Y는 하락, 5Y는 소폭 상승, 10Y는 보합이다. 짧은 구간과 중기 구간의 힘이 엇갈렸다는 정도까지만 확인된다. RP 하락은 단기자금 수급 신호이지 금리 인하 확정 신호가 아니다.

****PART 4 — 신용/크레딧****

- 은행채 AAA: 2Y +1.3bp / 3Y +0.3bp
- 카드채 AA+: 2Y +1.3bp / 3Y +0.8bp
- 회사채 AA: 2Y +1.8bp / 3Y +0.3bp

판단: 은행채/카드채 2~3Y는 대체로 축소 쪽이고, 회사채 AA 2Y만 소폭 확대다. 전반적 위험회피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, 구간별 차별화로 보는 게 안전하다.

거래내역: 회사채/공사채/특은채 등 원문 거래 리스트가 수집됨. 개별 종목 해석은 원문 거래가 많아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.

****PART 5 — 뉴스/리포트****

크레딧 뉴스:

- “7 월 금통위 만장일치 인상 전망 … 근원물가 따라 ‘백투백’ 가능성 “

오늘 읽을 리포트 3개:

- [국내크레딧] 상반기 신용평가 결산 : 상향 우위 , 신용 양극화 지속 (26.7.9 신한증권 차주희 김상인)
- [KB Bond] 향후 변화될 위시의 커뮤니케이션 (26.7.9 KB 증권 임재균)
- [국내 주식전략] 시장의 큰 우려 , 고점은 이미 지났을까 (26.7.8 신한증권 노동길)

****PART 6 — 오늘의 판단****

1. 오늘 핵심은 ‘낙찰은 여러 건 확인됐고, 응찰 강도는 발행사/구간별로 갈렸다’는 점이다.
2. 금리는 3Y 하락, 5Y 상승, 10Y 보합으로 한 방향 장세가 아니다.
3. 내일은 응찰배율, 민평 대비 언더/오버, 국고 3Y·10Y 변화만 먼저 확인하면 된다.

[리포트] 오늘 읽어볼 리포트

[>] [국내크레딧] 상반기 신용평가 결산 : 상향 우위 , 신용 양극화 지속

저자: 26.7.9 신한증권 차주희 김상인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30311>

[>] [KB Bond] 향후 변화될 위시의 커뮤니케이션

저자: 26.7.9 KB 증권 임재균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common/pdf/view/KB>

[>] [국내 주식전략] 시장의 큰 우려 , 고점은 이미 지났을까

저자: 26.7.8 신한증권 노동길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30122>

[>] [CrediVille] 2026 년 상반기 크레딧 시장 리뷰 및 하반기 조망 (26.7.8 하나증권 김상만) - 하반기 크레딧 시장 상황 , 시간을 두고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 https://file.hanaw.com/download/research/FileServer/WEB/economy/bond/2026/07/07/CrediVille_260708.pdf [크레딧 뉴스] “7 월 금통위 만장일치 인상 전망 … 근원물가 따라 ‘백투백’ 가능성 “ <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24229> KB 證 “ 향후 위시 의장 커뮤니케이션 , 점도표 축소와 경제전망 강화 ” <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4995446645512880&mediaCodeNo=257> 씨티 “ 한은 , 7 월 만장일치 금리인상 … 내년 최종금리 3.5% “ <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4795366645512880&mediaCodeNo=257> 호텔신라 , 첫 교환사채 풋옵션 ‘ 선방 ’ 했다 <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24106> 한화 , KAI 지

분 12.44% 로 확대 ... 한화시스템 5 천억 추가 투자

저자: 종합

URL: <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24028>

오늘 브리핑과 가장 직결된 리포트를 먼저 읽어봐.

DS증권 황대진 메일 기반 자동 생성